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8월 9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.

< 관심과 믿음 >

골로새서 3:1,2 / 새찬송가 491 (통일 543) 저 높은 곳을 향하여

1. 관심과 능력

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.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‘예수님의 관심을 바꾸기 위함’이었습니다.

그래서 ‘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,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,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’ 모두 주님의 관심을 ‘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지, 이 땅에서 어떻게 명예를 누릴지, 이 땅에서 어떻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질지’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(마4:1-3).

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에 있었습니다.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(마4:23-25).

만약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땅에 대한 비관주의나 금욕주의를, 또 이 땅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세속주의나 기복주의를 가르쳐주셨을 것입니다. 그러나 주님은 ‘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’ 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(마6:9,10),(골3:1,2).

예수님은 우리도 같은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다.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?

2. 관심과 기억

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. 그럼에도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. 그러므로 죄악 된 과거를 계속 떠올리며 마음에 두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잊어버립시다(사43:25). 그러나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(사49:15).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지금 나에게 주어집니다.

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를 금방 망각했습니다.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(시103:1-5).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 ‘남은 자’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‘기억’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(시137:1-5). 하나님은 이 ‘남은 자’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.

이런 기억이 모두 ‘관심’에서 나옵니다. 기억이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‘관심’이 있을 때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

3. 관심과 믿음

우리가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뤄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뤄집니다. 반면 이 땅의 일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 되지 않습니다.

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(요15:7).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.

< 적용 & 실천 >

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?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있습니까?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뤄지는 것에 있습니까?